

내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찾아가는 미니 식물원이 있다. 갈 때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있고 잎이 자라 항상 새로운 기운을 느끼는 곳이다. 물속에서 편안하게 자라는 수련 등 연꽃 종류가 있는가하면 연화비수초와 같은 다육식물 들은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다.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한다는 상사화, 아름다운 향기로 찾는 이를 즐겁게 하는 애기라일락, 논가나 밭에서 녹비식물로 짧은 생을 마치는 자운영도 대접받으며 천수를 누리고 있다.

여러 나무, 야생초, 야생화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린 식물원을 보면 참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러면서 현재 불지하는 우리 학교의 교육환경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생각하면서, 요즈음 세간 언론에 다루지는 교육소식들을 상기해본다.

언젠가부터 언론매체에 회자되는 교실붕괴, 학교폭력, 성폭력, 교권침해, 학교급식문제, 교육소비자, 대학입시, 자주 변하는 교육정책 등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들이 떠오른다.

차분히 판단해보면 절되고 있는 교육부문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이슈가 되지 않지만, 교육환경의 부정적인 면은 순식간에 전 국민에게 파급되는 이유는 특별한데 있지 않다. 오로지 교육에 '올인' 해 온 국민적 정서, 일반적인 사회가치보



불자 세상보기

이 학 순
광동중학교 교장

교단에서 '길'을 묻는다

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가치와 적극적인 관심,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교육현장의 부정과 모순 덩어리들이 '입살'의 원인이다.

교육현장에 서있는 당사자로서 이번 기회에 몇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우선 교육은 잘 알다시피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인내심을 갖고 평생을 통해 이뤄져야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점이다. 요즈음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또한 교육은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가정

과 학교, 사회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정 명문대학 진학이나 고시합격 같은 현실적인 가치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좋은 교육과정도 자리 잡기 어렵다. 다양한 각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때 교육의 목표도 변화할 수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부처님 제자들도 언뜻 떠올려보면 모범생들로만 구성된 정예집단이 아니라, 잡부러기로 유명한 가전현, 한때 반항아 기질을 가진 문제 청소년 라흘라, 동물 같은 삶을

살던 청년 톨론 니이다이, 머리 나쁘다고 멍청이로 무시 받던 주리반트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바다에서 각자 지닌 소질을 살려 후세에 귀감되는 훌륭한 제자로 탄생한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바라보는 아이들은 모두 부처님 성품을 지닌 귀중한 존재다.

은 국민이 여유를 갖고 참고 기다리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 언론에 비친 자극적인 제목 몇 글자에 쉽게 비판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면에 완전함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교육환경마저 이기고 지는 스포츠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나 자신도 학부형이면서 교육자다. 학부형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고 변화해야 하지만, 교육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정과 사회의 요구가 지나치고 이기적 요소가 많다고 느낄 때도 많다.

국민 전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운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교육현장까지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상황을 일반화시키고 전체의 일인양 매도하는 마녀사냥식 분위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족하고, 고쳐야 할 점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 현장은 긍정적이고 밝다. 심심함과 제마라의 특성을 지녀 여럿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야생화·야생초처럼 말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종교인구 조사결과를 보면 두통을 느낄 정도다. 이웃종교인 가톨릭이 지난 10년 동안 증가한 종교인구 237만명의 92.5%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신도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불교인구는 1072만명으로 전체 종교인구의 22.8%를 차지해 불교가 아직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지만, 연령별 분포도나 한국사회에서의 신임도나 영향력 등을 놓고 볼 때 이런 숫자는 의미가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천주교가 보여준 불교에 대한 우호적 태도, 전통적 관혼상제와의 유연한 접목 등은 이러한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학자들은 불교의 부진원인을 승려중심의 교단운영과 정령성 결여, 조직력과 결속력 부재, 복지 마인드 부족 등으로 꼽고 있다. 불교내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같은 위기론과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았던가. 스님들이 각성해야

불교의 경쟁력은 '불교'

한다.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인재를 키워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 청소년포교가 급하다. 사이버종단을 정비해야 한다 등등.

그러나 역사의 질곡과 내부적 전통 속에서 한국불교가 떠안은 문제가 너무 복잡해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아가야 할지조차 난감한 현실이기에 개혁의 외침은 목소리만 큰 형상 운동사미 끝난 거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식 있는 구성원들만 암담한 미래를 걱정할 뿐, 많은 신도들은 교단과 과제를 관심 밖의 일로 쫓겨 놓고 있고 한편에서는 오로지 자기 몫을 넓혀가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승려들이 적지 않은 게 한국불교의 뼈아픈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면 대책은 없는 것인가? 불교의 경쟁력과 경쟁력은 바로 '불교'라고 주장하고 싶다. 한국불교의 과제는 그 조직과 재정, 교육, 사회적 기여활동 등에 얼마나 불교적 이념이 잘 융해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스님들을 포함한 불자들이 자기 삶 속에서 얼마나 불교적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가 한국불교가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할 유일한 잣대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도수영(법도당 화주)

이렇게 들었다

괴물

싸움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이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고통만 준다. 그것은 도리가 아니요 이익이 아니며 안온과 쾌락이 아니며 천상과 인간에 지극한 고통과 재앙만 일으킨다.

〈별역잡아함경〉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으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박대표 테러범 지중호(50세)의 범행동기와 자금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일차적인 테러동기를 지씨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찾고 있다. 지씨는 전두환 정권때 만들어진 보호감호제도로 자신이 14년4개월에 이르는 오랜 수감생활을 해왔고 민정당=한나라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평소 "살고 싶지 않다. 너무 억울하게 옥살이를 많이 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한다.

그는 판사가 범행동기를 묻자 한나라당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답했고 복역시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등에도 이런 주장이 반복돼 있다. 그러나 이런 지씨가 왜 박 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수입에 비해 해픈 씹음에도 또 다른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이유를 찾기에 앞서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이처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괴물'로 변화하는 동안 그가 겪었을 사회에 대한 분노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지씨 같은 이들이 인간내면의 '화'를 다스리고 정상적인 사회성을 띠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2의 지씨는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 존재할지 모른다.

■ 조중수(취재부 기자)

열린마당

종교인 과세

한 시민단체가 스님·신부·목사 등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다뉴스(buddhanews.com)는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을 묻는 여론조사 실시했다. 13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62%인 86명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38%(53명)는 과세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했다.

댓글을 통해 파악된 찬반 이유는 각각 일반 여론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세 반대 이유로는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 △실질적으로 대부분 종교인들의 수입이 매우 적다는 점 등이다. '자안스님'이라는 네티즌의 독자는 "매월 몇 십만 원씩의 용돈은 받아왔지만 월급을 받아본 일은 없다"며 이익을 제기했고, 'phila'라는 네티즌의 독자는 "나라님도 못하는 중생구제에 사심 없는 헌신으로 한생을 살다가려는 중사자들에게 세금이 웬

박인순 기자

부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조사(조사기간: 5.10~5.23, 총 참여자 139명)

스님·신부·목사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종교인이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종교인의 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6명 (62%)
과세해야 한다	53명 (38%)

특별기고 정만(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독신·무보수의 수행자
근로자도 재산가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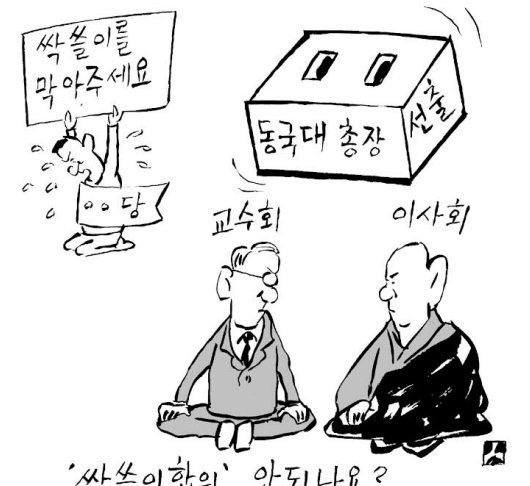
조계종의 종현에 수행자는 '수도'와 '교화'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독신'과 '무보수'를 출가자의 삶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신도들의 시주로 운영되는 승단에 스님들에게 보수의 기준이 있을 리 없다. 따라서 수행자에게 사회적 잣대를 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수행승을 운수남자(雲水衲子)라 하는 이유는 낮은 천을 모아 누덕누덕 기워 만든 옷을 입고 물결이 한곳에 머무르지 않으며, 구름과 물처럼 살기 때문이다.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수행처를 지속적으로 옮겨서 생활하는 스님들이 대부분인데도 세속적인 세금의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일부 총무원에서 교역직 종무원을 살거나 주지소임을 맡더라도, 이는 평생을 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잠시 종단의 명에 의해 직책을 사는 봉사일 뿐이다. 이들에게 잠시 주어지는 최소한의 보시라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용인되어야 한다고 본다.

'연대' 민명 심민섭



이재복 회장 (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 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들로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천일기공책[이재복 지음] 300면 값 10,000원

- 단체강의 : 삼성종합화학(주), 국립경향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주), 한솔개발(주) 등 다수

- ◆ 性命雙修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 길입니다.
- ◆ 色心不二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아시렵니까?
-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 "너 숨줄줄 아느냐?" 세상에는 숨 줄줄도 모르는 구도자들이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 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 ◆ 음기(사기)제거법의 원리도 모르는 스님들이 자기 죽는줄도 모르고 구병식이나 천도제를 많이 지낸 후 병의에 시달리거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손발이 싸늘하게 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전화주시면 책(약사 나경환 지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天一氣功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 4일코스

현대인의 만성질환은 무게 중심이 무너져서 생긴다. 스스로 골반, 척추를 바로 잡아 무게 중심을 바로 세워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여기 음체(냉한몸)를 양체로 바꾸고 氣場을 높이는 고급수련 법이 있습니다 단시일에 氣場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스님들 몸에서 엄청난 음기(사기)가 쏟아져 나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약취가 진동을 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나오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련을 마친 스님들께서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일기공소백산수련원에 오시면 수련에 대해 총 정리가 됩니다.

오심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유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천일기공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에서 대덕스님과 불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스님들이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14년간 수많은 스님들이 건강을 되찾고 기치 유행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57기 - 6월 15일(목) 오후 2시 - 18일(일) 12시

〈매월 1회 실시 - 선착순 20명 마감〉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 회원가입신청 : 054)637-9810(수련원) / 02)3436-3206 ~ 7(서울본회)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자리) ※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